

2019년 4월 14일

시편 23편(새번역)

-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 5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 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개역한글)

- 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느도다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도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하나님의 가장 달콤한 사랑을
아는 이가 너무나 적으니
하나님을 발견한 자마다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달라져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임재가 제게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선하신 주여!
침묵 가운데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
주의 신발을 벗겨드리오니
저와 하나 됨을 기뻐하시고
제 영혼을 주의 신부로 삼아주소서.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님, 주께 간구하오니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마소서.

- 십자가의 요한(St. John of the Cross, 1542-1591, 수도사, 개혁가)

이 시편은 눈, 귀, 마음 그리고 상상으로 보던 것을 다시 달히게 할 수 없으며,
비록 그것이 단지 잠간 영혼에 대해 열렸다고 해도,
이 시편은 이 세상에 결코 없을 리가 없는 평화와 위로의 진실을 비추어준다.
시편 23편은 시편들의 나이팅게일이다.

- 헨리 워드 비처(1813-1887, 목사)

“비록 나의 몸은 당신에게 팔려 왔지만, 내 영혼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노예 톰이 주인 레글리에게 한 말

- 헨리 비처 스토클(1811-1896)